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탈리아 와인생산자들

중국의 후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유럽을, 특히 이탈리아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롬바르디아를 시작으로 북쪽에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남쪽의 섬까지 퍼져 나갔다. 특히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3월 8일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농·식품 체인 및 보건 시설(약국 포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 및 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폐쇄했다. 4월 중순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실질적인 외부 활동은 중단되었다.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자면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 이상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즉각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와인에 관련한 부분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일부 생산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음 빈티지의 와인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결론은 통일되지 않았으나 자연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깨끗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최소 1미터)를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와인 비즈니스, 즉 경제적 측면은 여기서도 피해갈 수 없는 복병임에 틀림없다.

글·사진 엠마누엘레 펠루찌(Emanuele Pellucci) 번역 이정은



1. 피오 체사레의 오너 피오 보파와 딸 페데리카 보파

Piemonte **삐에몬테**

삐에몬테 주의 와인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피오 체사레(Pio Cesare)의 딸 페데리카 보파(Federica Boffa)는 “만약 포도밭과 셀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친다면 와인 판매는 중단되고 와인은 그대로 지하 셀러의 배럴과 탱크에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빈티지의 와인을 보관할 지하 셀러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일기 시작한다. “소비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녀는 “현재 우리는 수개월 동안 와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래처가 늘고 있으며 이 비상사태 이후 많은 레스토랑들이 와인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해외 와인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Trentino Alto Adige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칼다로 와이너리(Cantina di Caldaro)의 CEO인 토비아스 진저레(Tobias Zingerle)는 알토 아디제의 상황은 다른 이탈리아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포도밭에는 문제가 없고 병입을 하는 지하 셀러의 작업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셀러에 여전히 와인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3~4개월 후의 수확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제때 판매되지 못한 와인은 기존 가치의 1/10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와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증류를 하는 것이다. 대신 협동조합 내에서 수확 시 수량을 줄이거나 와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모든 와이너리가 셀러에 이미 와인이 있는 경우 뚜렷한 계획이 없으므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물론 와인을 증류소로 보내는 일은 안타까운 선택이 될 것 같다.”

트렌티노의 가장 큰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산 레오나르도(San Leonardo)의 대표 마르케제 안셀로 퀴리에리 곤짜가(Marchese Anselmo Guerrieri Gonzaga)는 “농업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문을 열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수확시기에만 일하는 직원이 아닌 정규 직원을 두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다. 오히려 6월에 진행되는 와인 병입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비용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그것이 더 걱정이다. 또한 판매의 관점에서 보면, 산 레오나르도는 생산량의 90%를 호레카(호텔, 레스토랑, 카페)에 공급하는 와이너리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식당과 와인바가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논의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다행히 2020년 초에 우리 와인의 판매 실적이 좋아서(약 30~40% 증가) 아마도 4월 말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징후의 대차대조표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에 대처하는 내용에 대한 뉴스레터를 관계자들(대략 1만 5천명)에게 보내어 소통하고 있다. 물론 소비량은 평소보다 적지만 그래도 잘 협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입업체는 호레카 이외에도 슈퍼마켓에 유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2. 산 레오나르도의 대표 마르케제 안셀로 퀴리에리 곤짜가 3. 칼다로 와이너리의 CEO 토비아스 진저레



1. 마르코 펠루가 와이너리의 로베르토 펠루가 2. 벨레노지의 오너 안젤라 벨레노지

Friuli Venezia Giulia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의 최고 브랜드인 마르코 펠루가(Marco Felluga)의 로베르토 펠루가(Roberto Felluga)는 “다행히도 콜리오(Collio,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에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흔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요 관심사는 시장, 특히 우리와 같이 주로 레스토랑에 와인을 판매하는 와이너리들의 매출이 멈춘 일”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채널,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개인 및 와인 판매점,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점들은 케이터링 서비스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를 보인다. 다시 오프라인의 시장을 시작할 수 있어도 전략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한 “와인 자체로도 2020년은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모두 지금부터 수확 때까지 일어날 일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마르코 펠루가의 화이트 와인을 포함하여 숙성 기간이 긴 와인들의 아름다운 진화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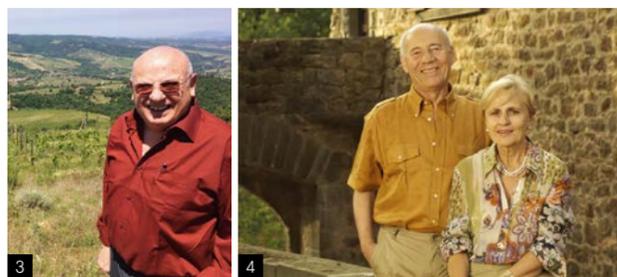
Marche 마르케

마르케의 역동적인 와이너리 벨레노지(Velenosi)의 오너 안젤라 벨레노지(Angela Velenosi)는 “느린 속도지만 포도밭과 지하 셀러에서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과 와인메이커 이외에는 접촉을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매출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온라인과 개인을 통해 대규모 소매점에 판매를 하여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 코로나19의 비상사태가 끝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채널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것이 호레카 시장에서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두 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Toscana 토스카나

끼안티 클라씨코 지역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Castello di Querceto)의 소유주인 알렉산드로 프랑수아(Alessandro François)는 바이러스로 인한 포도밭이나 셀러에서의 문제보다 상업적인 즉 와인의 판매에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탈리아에서는 더 이상 와인이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소량 주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특히 대규모 유통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대규모 유통을 하는 업체와 독일과 벨기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초에 미국으로의 일부 수출 계획도 잡혔지만 이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상태다. 유일한 희망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테레 포지오 스칼레테(Podere Poggio Scalette)의 유명 와인메이커이자 컨설턴트인 비토리오 피오레(Vittorio Fiore)는 “강제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기 있는 와인의 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통·판매가 늘어났다. 그러나 호레카 채널에는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수확과 재고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소한 두 가지 가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증류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와이너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공개 기여금을 개입시켜 증류주 생산을 촉진하는 것, 아니면 요즘 가장 필요한 건강 센터로 향하는 알코올을 생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른



3. 포테레 포지오 스칼레테의 와인메이커 비토리오 피오레 4.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의 오너 알렉산드로 프랑수아(좌)

하나는 빠른 시기에 더 많은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피오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부 생산자들이 수확을 포기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불 지연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구입한 와인에 대해 언제 지불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예견했다.

Sicilia 시칠리아

시칠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만큼이나 치열하지는 않다.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돈나푸가타(Donnafugata) 와이너리의 오너 안토니오 랄로(Antonio Rallo)는 “우리는 우리들의 포도밭, 지하 셀러, 그리고 판텔레리아 섬에 있는 와이너리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멀리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 또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포도밭과 포도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는 싹이 일찍 나왔지만 3월에 내린 비로 인해 계절의 평균 속도로 조정되고 있다고 한다. 안토니오 랄로의 여동생 호세(José)는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결국 많은 와인이 지하 셀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랄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유럽 수준의 증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덜 좋은 와인을 증류해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고품질 증류주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중간 정도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증류를 대안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새로운 증류에 관한 규칙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포도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와인의 질적 향상 또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셀러에 있는 이미 생산된 와인에 대한 숙성 시간이 늘어날 경우 와인의 최대치의 향상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돈나푸가타의 오너 안토니오 랄로 6. 국제와인양조협회 대표 리카르도 코타렐라

에필로그

움브리아의 와인메이커이자 국제와인양조협회(Union Internationale des Oenologues)의 대표인 리카르도 코타렐라(Riccardo Cotarella)의 몇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이 칼럼의 결론을 맺어본다. 그는 “먼저 이 어려운 순간에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테레사 벨라노바(Teresa Bellanova) 농업부 장관이 요구한 와인메이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와인이 다시 태어날 때 마다 품질의 차이를 만든다. 이는 소비자들의 와인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악몽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 6월이면 바이러스의 감염은 끝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지 않은 소규모의 와이너리들 중 불행히도 일부는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대규모 유통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와이너리들과 와인을 지하 셀러에 1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 숙성 와인을 생산하는 곳일 것이다.” 또한 그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문제가 끝날 때 사람들의 고뇌가 끝날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마치 몇 년 전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메탄올 와인 스캔들 이후 와인의 퀄리티가 변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와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한 창의성이 탄생할 것”이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W



엠마누엘레 펠루찌 (Emanuele Pellucci) 와인 칼럼니스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 등 수많은 저서 편찬. 1980년 이후로 이탈리아 정통 와인잡지 <치빌타 델 베레(Civiltà del Bere)>에 기고.